

## “한파에 난방비는 어쩌나”... 서민들 겨울나기 ‘혹독’

지난 8월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 국제유가 널뛰기... 실내등유 ‘급등’ 농어촌 배관사업 한계... 격차 심화 “사업 규모 확대, 연료별 차등 지원”

올 겨울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8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실내등유 가격도 급등해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 공급률이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혹독해졌다.

18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8월부터 6.8% 인상됐다.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MJ당 1.41원 올랐으며,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됐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여 만으로,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국

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실내등유 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1442원으로, 3년 전 동기간(1124.08원)과 비교하면 무려 28.28%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7월에는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최대 1644.39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지난 18일 전남지역 등유 평균판매가격은 1280.12원으로 3년 전 동기간(1079.02원)과 비교해 18.64% 상승했다.

전남지역 등유 평균판매가격(1280.12원)을 기준으로 가정집에서 주로 구매하는 단위인 실내등유 한 드럼(200L) 가격을 계산해 보면 25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단독주택의 크기와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 드럼이나 두 드럼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서운 한파에 두 드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난방비로 약

5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실내등유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 농가는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단에너지 공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한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농어촌지역에서 집단에너지 공급망으로 난방에너지를 얻는 가구 비율은 42.8%에 불과했다. 반면 도시지역의 비율은 91.7%로 두 배 이상 높았다. 구체적으로 도시 주민은 도시가스 보일러 이용자 비율이 77.2%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난방 14.5%, 등유 3.7% 등이 뒤를 이었다. 농어촌 읍부의 주택에서는 도시가스 67.4%, 등유 20.6%, 지역난방 2.0% 순으로, 면부 주택에서는 등유 51.2%, 전기 18.6%, 도시가스 16.3% 순으로 이용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에 집단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격차는 여전히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중은행의 용자를 지원해 농어촌 등의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7년 도입된 사업이다. 다만 정부는 도시가스 개발·공급 사업자가 투자하는 비용의 5~8% 수준의 소액을 융자하는 수준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 공급사가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466만 세대 중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세대는 249만 호이며, 전국 면부 1169개 지역 중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를 달성한 지역은 51곳(4.4%)에 불과하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국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전달돼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마련한 점검수단이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연료 조달 및 교체 등의 편의성을 제공해 난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농어촌 주민도 확대를 희망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가구 수는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의 0.6%에 불과하다.

농경연은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등 현 재 추진 중인 사업을 지속하되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 예산 투입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또 연료별 요금 차이를 고려해 등유 등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에 대한 차등 지원, 지원금액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효율 친환경, 난방 설비 교체, 주택 단열 보강, 창틀 교체 등 현행 집고치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2025년 설 선물 사전예약’ 진행** 롯데백화점은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점에서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축산, 수산, 청과, 그로서리 등 약 230개 품목을 선보이며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명절 최고급 선물로 여겨지는 축산 선물은 인기 품목의 ‘기본 중량’을 재조정했다. 대표 품목은 1+등급의 채끝, 등심, 안심 등 스테이크 부위만을 엄선한 ‘로얄 한우 스테이크 기프트(1.6kg, 38만원대)’, 1+등급의 3가지 구이용 인기 부위를 담은 ‘로얄 한우 로스 GIFT(1.6kg, 36만원대)’ 등이다. 청과 대표 세트로는 크기, 당도, 맛 등 삼박자를 모두 갖춘 고품격 과일 선물로 꼽히는 ‘레피세리 사과 배 GIFT(17만원대)’, ‘레피세리 사과 배 사인 GIFT(17만원)’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광주신세계, 올해 첫 LF패션 그룹 할인전

다크 등 18곳 참여·최대 70% 할인

광주신세계는 패션그룹 LF에서 구스 다운 롱패딩과 캐시미어 코트 등 겨울용 아우터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다크’와 ‘바버’ 등 고객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신세계는 20일부터 25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LF패션 그룹전을 연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바버와 다크를 비롯해 ‘질스튜어트’ 여성, ‘바네사브루노’, ‘라움 에디션’ 등 브랜드와 함께 미입점 브랜드인 ‘바쉬’까지 총 18개 MD가 참여해 최대 70%의 할인과 사은품 증정 프로

모션을 선보인다.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이자 왁스 재킷으로 유명한 ‘바버’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남성 바버 퀼팅 재킷을 20% 할인된 57만 5000원대에 판매한다. 이 밖에도 이월 상품들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질스튜어트 여성은 울 캐시미어 혼방 카디건을 44만원대에 판매하는 등 이월 상품들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다. 특히 질스튜어트 여성은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양말을 증정한다. 바네사브루노에서도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30명에게 핸드크림을 제공한다.

‘다크’ 구두는 이번 행사 기간 이월상

품에 대해 최대 70% 할인을 선보인다. 이에 따라 인기 신사화와 숙녀화를 10만원대 초반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여성들이 겨울에 많이 찾는 앵클 부츠 역시 10만원대 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

다크 숙녀와 다크 신사도 행사에 참여한다. 다크 숙녀는 인기 제품인 패딩 점퍼를 85만9000원대에, 다크 신사는 정장과 점퍼, 코트류 중 이월 상품들을 대상으로는 최대 40%, 정상 상품은 20%까지 할인에 나선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연말을 맞아 다크와 바버 등 인기 브랜드를 가진 LF그룹에서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며 “고마운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선물을 찾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 최용욱 금감원 광주전남지원장 부임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신입 지원장에 최용욱(사진) 전 전남도청 금융협력관이 부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최 지원장은 “우선 지역 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및 민원 감축 유도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금

융교육대상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역 금융·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상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보다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지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덕고, 한양대를 졸업하고, 2002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뒤 저축은행검사국 검사팀장, 보험감리국 계리팀장,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부국장, 전라남도청 금융협력관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최권범 기자

### 재테크 칼럼

## “가상자산 비트코인, ‘취약의 제곱’일까”

부동산, 증시 등 주요 자산시장이 침체에 빠져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요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2024년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작년부터 예상됐다. 투자자들의 숙원이던 비트코인 ETF의 뉴욕 증시 상장이 예측되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 1월 상장 승인을 받음으로써 비

트코인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4월 도래해서 불붙은 비트코인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비트코인 수요자를 자처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에 제트엔진을 달아줬다. 2024년은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가 만발한 한해였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축복 받은 한해였다.

반면 비트코인의 투자 기회를 놓쳐버린 투자자들은 FOMO(공간에서 느끼는 소

외감이나 관계 단절) 현상에 시달리고 있거나 앞으로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할 것인지, 혹시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도 깊을 것이다. 이럴 때는 미국의 금융계를 움직이는 거장들의 비트코인을 대하는 생각은 어떤지 파악해 보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월스트리트 대표 5인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워런 버핏은 지금도 비트코인은



‘취약의 제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트코인을 사기꾼들의 도박놀이쯤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의 나이가 95세라는 것은 참고할 사항이다.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은 사기이고 쓸모 없는 장난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JP 모건의 영업활동은 비트코인 ETF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시타델의 켄 그리핀, 브릿지워터의 창시자 레이 달리오 등은 과거 모두 비트코인을 비판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리하자면 세계 금융계의 거장들은 과거에는 모두 비트코인에 회의적이었으나 지금은 3인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을 제외한다면 워런 버핏 1인만 비트코인에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하는데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